

'07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보고

◇ IMD가 5.10자로 「200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보고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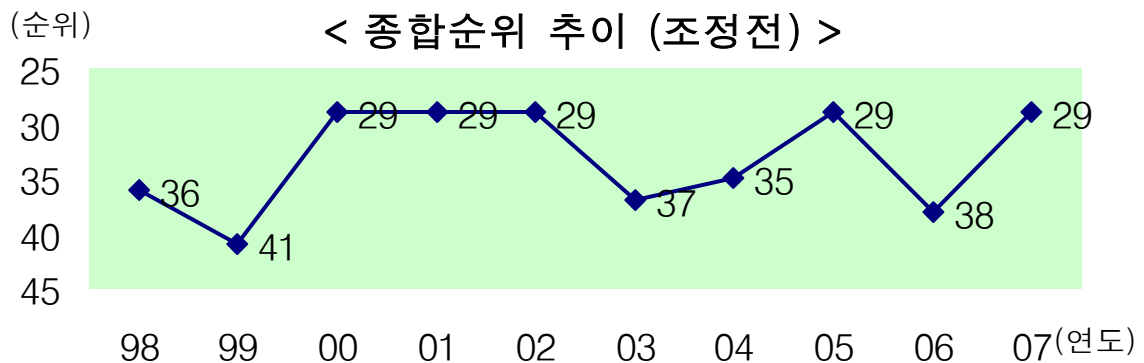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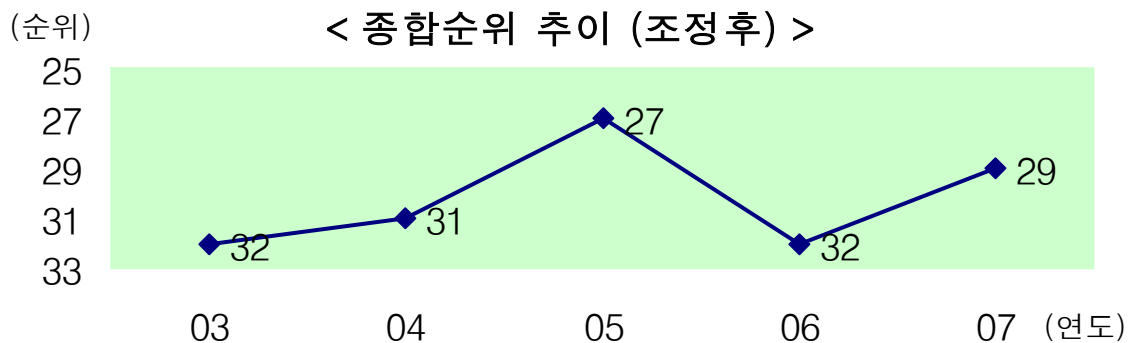
* IMD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 55개 평가 대상국중 06년(32위)*에 비해 3단계가 상승한 29위를 기록

* 06년 순위는 발표당시 38위였으나, IMD가 07년 평가대상을 '06년 61개국에서 55개국으로 조정하면서, 조정된 55개국을 기준으로 '06년 발표한 우리나라 순위 38위를 32위로 조정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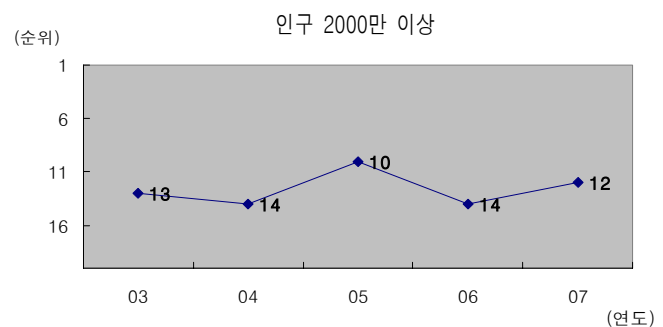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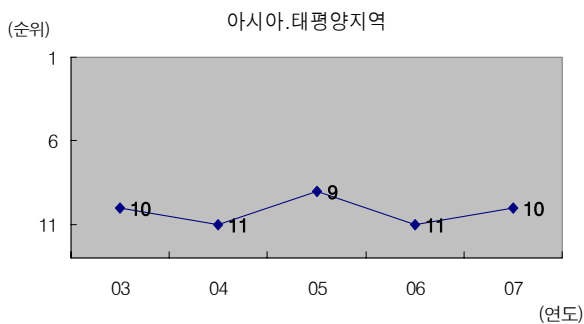
※ 첨부1 : 07년 세계경쟁력 종합순위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10위로 지난해(11위)에 비해 1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에서는 12위로 지난해(14위)에 비해 2순위가 상승함

※ 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순위) : 싱가포르(2)-홍콩(3)-호주(12)-중국(15)-대만(18)-뉴질랜드(19)-말레이시아(22)-일본(24)-인도(27)-한국(29)

※ 인구2천만명이상(전체순위) : 미국(1)-캐나다(10)-호주(12)-중국(15)-독일(16)-대만(18)-영국(20)-말레이시아(23)-일본(24)-인도(27)-프랑스(28)-한국(29)



□ IMD는 07년부터 경쟁력 1위 국가인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잡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으로 분석하여, 평가대상국을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대·유지 국가”와 “경쟁력 감소”국가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경쟁력 확대·유지” 국가군으로 분류됨

○ 중국·인디아·러시아 등 주로 신흥국가들이 기존 경쟁력 강국을 빠르게 따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태리·프랑스 등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가로 분류

※ 확대·유지(Catching up) : 한국, 중국, 인디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 홍콩 등 40개국

※ 경쟁력 감소(Losing ground) : 이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필리핀, 프랑스 등 15개국

2.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의 경쟁력 변동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16위), 프랑스(28위), 이탈리아(42위)의 순위는 전년에 비해 각각 9, 2, 6 단계씩 상승하였고, 영국(20위)은 변동이 없었음
- 반면,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싱가포르(2위)와 중국(15위)이 전년에 비해 각각 1, 3단계씩 상승한 반면, 홍콩(3위), 대만(18위), 일본(24위)은 각각 1, 1, 8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독일	대만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07년	1	2	3	15	16	18	20	24	28	29	42
'06년	1	3	2	18	25	17	20	16	30	32	48
변화	-	+ 1	Δ 1	+ 3	+ 9	Δ 1	-	Δ 8	+ 2	+ 3	+ 6

- 07년 평가에서는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영국은 유지)한 반면, 아시아 경쟁국에서는 한국, 중국의 상승과 일본의 하락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남

3. 분야별 강·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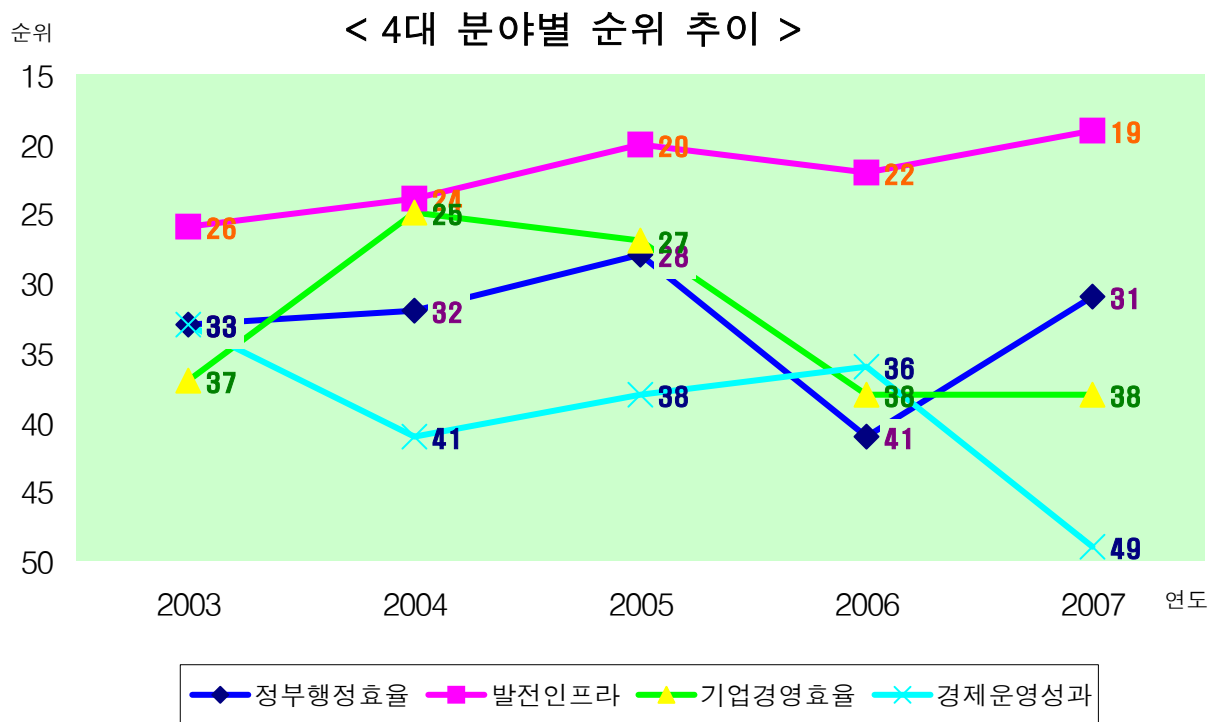
- 4대 분야별로는 정부행정효율 분야(41→31위) 및 발전인프라 분야(22→19위)는 개선되고, 기업경영효율 분야는 작년 수준을 유지(38→38위)한 반면, 경제운영성과 분야는 하락(36→49위)

<4대 분야 및 20개 부문별 순위 비교>

분야	'07	'06	'05
① 경제운영성과분야	49	36	38
국내경제 (국내총생산, 소비지출, 투자 및 저축, 인플레이션 등)	25	30	32
국제무역 (경상수지, 무역수지, 교역비중, 상품수출입, 관광수입 등)	45	40	34
국제투자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자산거래 투자 등)	43	42	51
고용 (총 취업자수, 취업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공공부문 고용비중 등)	15	13	8
가격 (소비자물가, 생계비지수, 아파트·사무실임대료 등)	51	57	56
② 정부행정효율분야	31	41	28
공공재정 (중앙정부 국내 및 해외부채, 외환보유고 등)	19	27	14
재정정책 (총조세수입, 개인 소득세율, 종업원의 사회보장기여비율 등)	10	16	15
제도적여건 (환율정책, 국가신용등급, 정부정책 일관성, 정부투명성 등)	36	46	30

기업관련법(보호주의여부, 정부보조금, 경쟁규제, 노동규제 등)	38	51	34
사회적여건(안전과 사유재산 보호, 소득분배, 차별, 여성의 수입비율 등)	52	60	58
③ 기업경영 효율분야	38	38	27
생산·효율성(총생산성, 노동생산성, 서비스업 생산성 등)	40	42	42
노동시장(제조업단위 노동비용, 근로시간, 노사분규, 경제활동 참가율 등)	28	43	26
금융(은행부문 자산, 신용카드 발급수, 투자위험, 주식시장 규모 등)	31	37	38
경영활동(기업의 시장변화 적응성, 주주가치, 마케팅관리, 기업가정신 등)	41	48	26
행태·가치(문화 개방도, 변화적응성, 개선필요성 이해도 등)	43	40	25
④ 발전인프라분야	19	22	20
기본인프라(토지면적, 인구비중, 도로, 철도, 항공, 총에너지 국내생산 등)	17	29	23
기술인프라(통신투자, 전화요금수준, 인터넷 사용지수, 기술규제 등)	6	6	2
과학인프라(연구개발비 규모, 특허건수, 과학논문인용회수 등)	7	12	15
보건·환경(보건관련 공공지출, 건강수명, 도시인구비, 삶의 질적수준 등)	26	32	33
교육(총교육비 지출액, 교사비율, 고등교육 수확율, 문맹율 등)	29	42	40

* 4대 분야별 순위는 금년도 55개 평가 대상국 기준으로 조정된 순위이며, 05~06년 20대 부문별 순위는 조정되기전(전년도 61개국 기준) 순위임



※ 첨부 2 : 4대 분야별 강점 및 약점 항목 (전년대비 포함)

※ 첨부 3 : '06년 대비 개선 및 악화 주요항목

□ 경제운영성과 분야 : 13단계 하락 (36→49위)

- 국내경제운영 평가는 상승했으나,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부문은 큰 폭으로 하락
- 장기실업률(1위), 상품수출(11위) 등이 강점요인이나, 전년에 비해 경상수지축소(% , GDP대비 : 2.09→0.68),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감소(63.1→36.5억불), 환율의 급격한 고평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위축(설문) 항목 등은 악화요인으로 작용

□ 정부행정효율 분야 : 10단계 상승 (41→31위)

- 실질 개인조세부담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정도(설문, 4.08→5.52점),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설문, 4.86→6.37점) 등이 개선된 반면
- 성·인종 등 사회적 차별정도(설문, 51위), 이민법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정도(설문, 49위) 등은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됨

□ 기업경영효율 분야 : 유지 (38→38위)

- 제조업근로자의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2위)이나, 기업에서 고객만족이 중시되는 정도(설문, 5위)등이 강점요인인 반면
-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설문, 55위), 국민문화의 대외적 개방도(설문, 55위), 회계감사의 적정한 운용 정도(설문, 51위) 등은 취약점으로 작용

□ 발전인프라 분야 : 3단계 상승 (22→19위)

- 특히 생산성(2위), 광대역통신망 가입자비율(2위), 고등교육 수확률(4위)등이 강점요인인 반면
- 초등학교 학생/교사비율(52위),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정도(설문, 44위), 의사·간호사당 인구수(44위) 등이 약점요인으로 작용

4. IMD평가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07년 IMD의 평가는 4대분야 20개부문에 323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06년 : 312개 항목), 이중 2/3는 통계자료, 1/3은 설문(‘07.2~3월, 기업인 대상)을 활용하였음
 - 설문은 IMD측에서 직접 발송 및 수거한 관계로 아직 구체적인 규모 등을 알수 없으나, 06년은 61개국에서 총 4,000여건을 회수했으며, 한국의 경우 당시 파트너기관(산업연구원)을 통해 300건 및 추가로 IMD가 직접발송을 한 바 있음 (금년은 파트너기관 없음)

- **IMD의 평가방식**은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WEF(세계경제포럼)에 비해 전체적으로 설문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나, 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환경에 초점을 두는 설문을 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변화가 심하고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음

※ 설문비중 (06년)

- WEF : 총 90개 항목중 통계 24개, 설문 66개
- IMD : 총 312개 항목중 통계 199개, 설문 113개

- 참고로 국가채무의 경우, OECD평균 부채비율(GDP대비)이 76.9%인 반면, 우리나라는 33.4%(06년말 기준)임에도 불과하고, IMD는 중앙정부 부채의 실질증가율(54위, 06년)을 평가항목으로 삼입함에 따라,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

- 기타 다수의 설문항목들의 평가결과도 실제와는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사례 : 정부정책의 일관성(49위), 정부 경제정책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48위), 보호주의(55위), 대기업들이 국제표준에 효과적인 정도(48위), 중소기업들이 국제표준에 효과적인 정도(58위) 등

- IMD의 평가결과가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참여정부의 5년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취약분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한 개선·홍보노력을 계속하겠음

-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국조실) 및 ‘부처별 평가지수 관리 T/F(14개 부처, 16개)’ 등 경쟁력 제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 활동 독려예정
 -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 운영·관리**
 -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및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등
 - **IMD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추진**
 - 주요선진국(인구 5천만, 소득 2만불 이상), 아시아 경쟁국, 유럽강소국을 선정하여 경쟁력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
 - **국가경쟁력지수 세부항목을 성과지표로서 반영·관리**
 - 소관부처의 국가경쟁력 제고노력과 정부업무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평가지수 세부항목을 각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지표에 반영하도록 관리를 강화
 - * 성과지표 반영 지속확대 : (‘05)19개 → (‘06년)78개 → (‘07년)142개
 - 특히 WEF(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평가(9월경)를 앞두고 있는 만큼, WEF가 활용하는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 등의 관련통계를 사전 점검, 최신자료 제공 등 조치
- ※ WEF순위 : 05년 19위/117개국 → 06년 24위/125개국

< 첨부 1 > 07년 세계경쟁력 순위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1위	미국 (1)	31위	리투아니아 (-)
2위	싱가포르 (3)	32위	체코 (28)
3위	홍콩 (2)	33위	태국 (29)
4위	룩셈부르크 (9)	34위	슬로바키아 (33)
5위	덴마크 (5)	35위	헝가리 (35)
6위	스위스 (8)	36위	그리스 (36)
7위	아이슬란드 (4)	37위	요르단 (40)
8위	네델란드 (15)	38위	콜롬비아 (34)
9위	스웨덴 (14)	39위	포르투갈 (37)
10위	캐나다 (7)	40위	슬로베니아 (39)
11위	오스트리아 (13)	41위	불가리아 (41)
12위	호주 (6)	42위	이탈리아 (48)
13위	노르웨이 (12)	43위	러시아 (46)
14위	아일랜드 (11)	44위	루마니아 (49)
15위	중국 (18)	45위	필리핀 (42)
16위	독일 (25)	46위	우크라이나 (-)
17위	핀란드 (10)	47위	멕시코 (45)
18위	대만 (17)	48위	터키 (43)
19위	뉴질랜드 (21)	49위	브라질 (44)
20위	영국 (20)	50위	남아프리카 (38)
21위	이스라엘 (24)	51위	아르헨티나 (47)
22위	에스토니아 (19)	52위	폴란드 (50)
23위	말레이시아 (22)	53위	크로아티아 (51)
24위	일본 (16)	54위	인도네시아 (52)
25위	벨기에 (26)	55위	베네주엘라 (53)
26위	칠레 (23)		
27위	인도 (27)		
28위	프랑스 (30)		
29위	한국 (32)		
30위	스페인 (31)		

- 1) ()안은 55개 평가 대상국 기준으로 조정된 '06년도 순위임
- 2) '07년 평가에서는 바바리아(독일), 카탈로니아(스페인), 일 데 프랑스(프랑스), 롬바르디(이탈리아), 마하라슈트라(인도), 상파울로(브라질), 제장성(중국), 스코틀랜드(영국) 등 8개 경제권역이 제외되고, 리투아니아 및 우크라이나 2개국이 추가됨(총 55개국)

[본문으로](#)

< 첨부 2 > 4대 분야별 강점 및 약점 항목 (전년대비 포함)

① 경제운영성과 분야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장기실업률(1/61 → 1/55위) • 실업률(6/61 → 8/55위) • 상품수출(12/61 → 11/55위) • 청년실업률(11/61 → 12/55위) • 서비스수출(10억\$) (16/61 → 16/55위)	• 생계비지수(59/61 → 54/55위) • 관광수입(50/61 → 49/55위) •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액 (41/61 → 49/55위) • 교역조건지수(52/61 → 48/55위) • 제조업 이전의 미래경제 위협 정도(설문)(37/61 → 48/55위)

② 정부행정효율 분야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정부보조금(4/61 → 3/55위) • 총외환보유고(4/61 → 5/55위) • 소비세율(6/61 → 8/55위) • 이자율 스프레드(% , 대출금리 -예금금리)(11/61 → 10/55위) • 실효소득세율(조세/1인당 GDP) (14/61 → 11/55위)	• 성·인종 등 사회적 차별정도 (설문)(58/61 → 51/55위) • 해외 파트너와 국제거래 협의가 자유로운 정도 (설문) (54/61 → 51/55위) • 환율안정지수(55/61 → 49/55위) • 이민법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정도(설문) (59/61 → 49/55위) • 공공계약의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도(설문)(51/61 → 49/55위)

③ 기업경영효율 분야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근로시간(7/61 → 1/55위) • 제조업근로자의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23/61 → 2/55위) • 기업에서 고객만족이 중시되는 정도(설문)(14/61 → 5/55위) • 숙련근로자 채용 용이성(설문)(47/61 → 11/55위) • 1인당 주식거래액(25/61 → 17/55위)	•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설문)(61/61 → 55/55위) • 국민문화의 대외적 개방도(설문)(55/61 → 55/55위) • 경영이사회의 효율적 경영감독 정도(설문)(56/61 → 54/55위) • 주식시장지수(9/61 → 51/55위) • 회계감사의 적절한 운용 정도(설문)(56/61 → 51/55위)

④ 발전인프라 분야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특허 생산성(2/61 → 2/55위) • 광대역통신망 가입자비율(1/61 → 2/55위) • 고등교육 수확률(4/61 → 4/55위) • GDP대비 기업의 R&D 지출(7/61 → 5/55위) • GDP대비 총 R&D 지출(9/61 → 5/55위)	• 초등학교 학생/교사비율(56/61 → 52/55위) • 총 보건관련 지출액(47/61 → 44/55위) •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정도(설문)(35/61 → 44/55위) • 의사, 간호사당 인구수(48/61 → 44/55위) • 중등학교 학생/교사비율(41/61 → 44/55위)

< 첨부 3 > '06년 대비 개선 및 악화 주요항목

□ 개선항목

분야	항목명	'06년	'07년
경제운영 성과	•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10억불)	4.30	7.13
	•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 , GDP 대비)	0.54	0.80
정부행정 효율	• 실질 개인조세부담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정도(설문)	4.08	5.52
	•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설문)	4.86	6.37
기업경영 효율	•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조달(% , GDP 대비)	62.97	90.73
	• (금융기법)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설문)	4.26	5.71
발전 인프라	• 숙련된 엔지니어의 이용 가능성(설문)	4.73	6.83
	• 도시화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18	7.33
	•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 정도(설문)	5.53	7.48
	•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45	7.37
	•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설문)	5.21	7.01
	• 인프라스트럭처의 유지와 개발에 대한 계획과 재원이 적절한 정도(설문)	5.47	7.09
	• 기술규제가 기업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26	6.81
	• 입법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설문)	5.01	6.47
	• 기업간 기술협력정도(설문)	5.74	7.36

□ 악화항목

분야	항목명	'06년	'07년
경제운영 성과	• 경상계정수지(% , GDP 대비)	2.09	0.68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 GDP 대비)	0.80	0.41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10억불)	6.31	3.65
	• 환율이 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45	3.73
	• 외국인 방문 관광수입(% , GDP 대비)	0.89	0.72
정부행정 효율	• 정부규제가 사업 활동의 용이성을 지원하는 정도(설문)	5.17	4.22
	• 정부정책의 일관성(설문)	3.74	3.12
	• 법과 규제가 기업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정도(설문)	3.89	3.26
	• 경쟁 입법이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정도(설문)	5.66	4.78
기업경영 효율	• 외국인 고급인력이 당신 나라의 사업환경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설문)	5.09	3.78
	• 경제와 사회의 개선필요가 사회에서 폭넓게 이해되어 지는 정도(설문)	6.60	5.37
	•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정도(설문)	7.01	5.80
	• 국민문화의 대외적 개방도(설문)	5.51	4.57
	•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설문)	3.97	3.35
발전 인프라	• 언어 능력의 기업 요구 부합 정도(설문)	4.65	3.93